

중년 무배우남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효과 분석 :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Single Males: Comparing One-person Households and Multi-person Household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서지원*
일본 弘前大學 교육학부
준교수 이수진**

Division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ofessor Seo, Jiwon
Faculty of Education, Hirosaki University, Japan
Associate Professor Lee, Sujin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논의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과거 혼인경험과 관계없이 중년 무배우남성을 1인가구와 다인가구로 구분하여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차이를 살펴보고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였다. 제13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2018)를 사용하여 중년 무배우남성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 무배우남성 1인가구는 이들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인터넷사용 등 인적자본 수준은 다인가구보다 낮았다. 둘째, 중년 무배우남성의 가구주 여부에 따른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수준의 차이를 보면, 이혼·사별 경험이 있는 다인가구인 비가구주 중년남성은 1인가구에 비해 사회자본의 수준이 현저히 낮았다. 미혼의 경우, 1인가구에 비해 비가구주 중년남성의 미취업 비율은 높고 상용근로 비율은 낮았다. 셋째, 혼인상태에 따른 중년 무배우남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 변수 중 경제활동상태는 이혼·사별집단에서 1인가구와 다인가구에 공통으로 영향을 주었다. 사회자본의 효과를 보면 미혼집단에서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유대수준이 높을수록, 다인가구에서 신뢰가 높은 집단이 신뢰가 낮은 집단에 비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 이혼·사별집단에서는 1인가구에서 자원봉사참여가, 다인가구에서는 신뢰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사회자본 변수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강화되고 있는데, 향후 중년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인가구라는 가구의 형태보다 오히려 이용자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 1인가구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다인가구임에도 소외되기 쉬운 중년 무배우남성의 정책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1인가구, 다인가구, 중년 무배우남성, 인적자본, 사회자본, 생활만족도

*주저자: 서지원(jiwonseo@mail.knou.ac.kr), <https://orcid.org/0000-0002-8012-8252>

**교신저자: 이수진(pourtant22@gmail.com), <https://orcid.org/0000-0001-6104-6967>

〈Abstract〉

The life of middle-aged one-person households is rising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mily policy issues in Korean society. In Japan, even in multi-person households, the issues of middle-aged sons and daughters living with their old parents have been a concern. Data are from the 13th wave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analyzing 482 middle-aged single males regardless of their past marital stat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on the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single persons by comparing on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s, respectively.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human capital of one-person households of middle aged males was lower than their counterparts in multi-person households. Second, the level of social capital in the group of divorced or widowed, nonhouseholder middle-aged males in multi-person households was lower than their counterparts in one-person households. Third, the effects of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ir marital status and household types in the group of middle-aged single males. Based on th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on the community programs for middle-aged males including not only one-person households but also multi-person households were discussed.

Key words: one-person households, multi-person households, middle-aged single males, human capital, social capital, life satisfaction

I.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어 온 노인단독가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기와 중년기의 1인가구 등 생애주기적 전반에 대한 접근을 통해 홀로 생계를 꾸려가는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청년 1인가구는 인간 발달 과정에서 취업, 학업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구형태로 볼 측면이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혼인하여 1인가구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1인가구로 경협하는 문제가 일시적일 수 있다. 반면, 중년기에 1인가구를 형성한다는 것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1인가구로 지내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노년기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청년 1인가구에 비해 향후 정책적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 1인가구의 연령대 분포에서 40~50대의 중년 1인가구는 약 47%를 차지할 정도로 높으며, 한국사회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는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혼인상태별 통계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통계청, 2019). 중년 1인가구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중년 1인가구 중 남성 1인가구에 더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장래가구 특별추계(2017~2047)를 토대로 성별 1인가구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40대와 50대의 1인가구는 남성의 경우 각각 9.4%, 9.5%인 반면, 여성의 경우 각각 5.3%, 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중년 1인가구는 물론, 1인가구는 아니지만 중년기에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무배우인구의 비중 증가 현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구형태에 따라 정책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1인가구 이외에도 중년 무배우 집단으로 확장하는 연구

는 이미 이를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주목한 다수의 일본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사회는 중년기 인구에서 무배우율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특히, 이들이 노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형태를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자 정책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의 40~50대 중년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약 6% 정도 감소한 데 반해, 미혼상태의 무배우 중년인구의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藤森, 2019). 이는 중년기에 유배우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혼인하지 않은 채 미혼상태를 유지하거나 혼인을 했더라도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무배우상태에 있는 인구가 늘어남을 보여주는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부모와 중년의 성인자녀가 동거하는 가구형태가 증가하는데 대해 일본 사회는 최근 10여 년 동안 ‘무연사회(無縁社会)’, ‘40대의 위기’, 70~80세 전후 연령대의 부모와 40~50대 전후 연령대의 미혼자녀가 경제적 이유로 함께 살 수밖에 없어 동거하는 상황을 일컫는 ‘70-40문제’ 혹은 ‘80-50문제’ 등으로 칭하고 있다. 중년 무배우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중 자신의 노부모와 동거하는 가구형태에 주목한 연구를 보면,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 미혼자녀의 취업상태와 경제상태가 같은 연령대의 유배우집단에 비해 윤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白波瀬, 2005, 2009; 西, 2015). 이러한 성인자녀가 노부모와 동거함으로써 성인자녀 세대의 빈곤화를 방지하는 긍정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山田, 2019; 宮本, 2019). 그럼에도, 성인 미혼자녀와 노부모 동거가구는 부모가 견제할 시기에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임시방편임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사회도 노부모와 중년의 무배우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은 상당한 수준이다.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형태는 부부와 미혼자녀, 부와 미혼자녀, 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형태로 나눌 때, 이들 중 가구주 연령이 70대 이상인 고령층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비율은 4%, 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비율은 7%, 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8% 수준이며, 이러한 수치는 이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통계청, 2019). 즉 한국사회에서도 중년 무배우집단은 현재 1인가구가 아닌 경우라 해도 가까운 미래 언젠가 1인가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을 추론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들 중년 무배우집단 중 남성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크다. 1인가구를 다루는 많은 연구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1인가구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시작된 만큼, 남성보다는 여성에 우선적 관심을 기울여 온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중년 무배우집단의 성별 특성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같은 상황의 여성과 비교해서 남성이 결코 더 낫지 않은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남성의 생활실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년남성의 사회적 관계망은 중년여성에 비해 범위가 좁다(한경혜·김주현·김경민, 2003).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배우자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는데, 이는 중년 무배우남성의 경우 사회적 연결망을 비롯한 사회자본 수준이 더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년남성 1인가구에만 집중하기보다 현재 무배우상태에 있으면서 다른 누군가와 함께 사는 다인가구의 중년 무배우남성도 포함하고자 한다. 즉, 현재 중년 무배우남성 집단은 1인가구이든 다인가구이든 가구형태와 관계없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된다. 또한, 그에 따라 이들의 혼인상태 역시 미혼은 물론, 사별, 이혼, 별거 등으로 다양하므로 본 연구는 현재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무배우라는 특성을 공유하면서 가구형태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로 구분되는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혼인상태에 따른 분석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책대상으로서의 관심이 높은 이들 집단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의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중년 무배우남성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인적자본이론

1) 인적자본의 개념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면서 화폐와 같은 물리적 자본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하나의 중요한 자본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인적자본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Becker, Bryant 등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Becker(1964)는 교육수준을 주요 인적자본으로 보았고, 그에 따른 이익이 화폐자본 이득을 초과함을 주장하였다. Bryant(1990)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비용과 그로부터 생애 전반에 걸쳐 획득할 수 있는 투자이익을 토대로 하여 인적자본이 다른 자본투자에 비해 높은 이익 회수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인적자본의 형태를 교육수준뿐 아니라 지식, 기술, 건강 등으로 확장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검증하였다. 이처럼 인적자본이 자본으로서 지니는 가치를 뒷받침하는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사람에 대한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주목한다.

2) 중년기의 인적자본

생애주기에서 중년의 연령 범위에 대한 정의는 연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장년기를 별도로 구분하는지에 따라 시작하는 시점이 달라지기도 하며, 은퇴 이후의 노년기를 60세로 보거나 65세로 보는지에 따라 끝나는 시점이 달라진다. 본 연구는 최근 통계청의 청년 1인가구 정의에서도 청년기를 39세까지로 보고 있어 중년기를 40세 이후부터 노년기 진입 이전인 64세로 정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1인가구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는 주로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과 같이 구분하여 1인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중년 1인가구의 증가를 혼인지연, 이혼, 분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연구(김혜영, 2008; 이희연·노승철·최은영, 2011)와 같은 맥락에서 중년 1인가구 연구는 이들의 생애경험이 반영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혼인상태를 중요하게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인가구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다인가구와의 비교를 통한 접근을 수행한 다수의 연구가 있다.

먼저, 중년 1인가구의 인적자본의 특성 중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년층 1인가구의 취업상태의 특징으로 다인가구에 비해 비경제활동 비율이 높음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은나와 이민홍(2016)은 청년층(20~39세), 중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으로 나누어 1인가구의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중년 1인가구는 경제활동참여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호정과 김재태(2017)의 연구는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1인가구의 취업률은 38%로 다인가구의 68.7%에 이르는 취업률에 비해 훨씬 낮았다.

이들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중년층 1인가구의 종사상의 지위는 임시직, 일용직, 정부 지원 일자리, 단순 노무자 등의 비중이 중년 다인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 연구(강은나·이민홍, 2016; 차경옥, 2006)가 있다. 65세 미만 비노년층을 대상으로 보면 1인가구의 임금근로 종사비율이 다인가구보다 높았다(이

현정, 2017).

한편, 중년 무배우집단에 주목한 연구는 일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령대가 40~50대인 중년남녀 가운데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형태의 경우 1인가구보다 오히려 취업하지 않은 비율이 높고, 취업한 경우에도 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난 다수 연구(高山, 2016; 藤森, 2016, 2021; 千保, 2011; 西, 2015)가 있다.

다음으로 중년기의 인적자본 특성 중 건강상태의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무배우집단은 유배우집단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게 나타났으며(김현성 외, 2019), 일본 연구에서도 중년남성 중 무배우집단이 유배우집단보다 비만율이 높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비율도 높았다(高山, 2016). 또한, 강은나와 이민홍(2016)은 건강관련 특성으로 생애주기와 관계없이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건강수준이 낮았는데, 특히 1인가구와 다인가구간의 건강격차는 중년층에서 두드러졌다. 중년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만성질환율, 외래진료 횟수, 입원율, 우울의심률, 자살생각 등에서 건강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년 무배우남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적자본, 즉 교육수준, 취업상태, 건강상태가 혼인상태나 가구형태에 따라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도 검증하고자 한다.

2. 사회자본이론

1)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자본으로 사회적으로 연계된 사람들 사이에서 호혜성의 규범에 근거를 둔 교환에서 비롯하는 자원으로 정의된다(Field, 2004; Lin, 2001). 이는 사회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개인들 간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뢰나 유대 등이 실제로 경제발전이나 민주주의 이념의 성숙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이다.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이 가지는 기능적 측면에 주목하여 신뢰와 규범을 공유하는 집단에서 관계의 구조적 속성을 중시하였으며, 사회자본이 결국 인적자본의 형성에 기여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가족관계와 지역사회에서 축적된 사회자본의 효과에 주목한다. 한편, Putnam(1993, 2000)은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자본을 정의하였는데, 사회적 연결망, 규범, 신뢰 등이 구성원 간 상호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동을 촉진하는 요소로서의 사회자본에 주목하였다.

개인이 소유한 자원의 측면에서 비교할 때, 자원의 수준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중년 무배우남성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는 물질적 자원의 대안으로서 이들이 소유한 사회자본, 즉 신뢰, 유대, 자원봉사 등이 혼인상태나 가구형태 등에 따라 열

마나 다른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들의 삶의 질에 사회자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중년기의 사회자본

일본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자본의 특성은 후지모리(藤森, 201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현재,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경제 원조를 해줄 사람이 있는가’, ‘현재 병에 걸렸을 때 간병·간호와 가사를 해줄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추론할 수 있다. 조사결과 1인가구는 2인 이상의 다인가구에 비해 경제 원조나 간병·간호 가사를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다. 한편, 다인가구 중에서도 원조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부모’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다인가구에 속한 이들 중 대다수인 90%가 부모와 동거한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성신 외(2017)는 남성 중고령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이 친구나 동료 등 한정된 범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 간의 연결망에서 비롯하는 사회적 지지 등이 낮아 사회자본 수준이 취약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생애주기에 따라 청년, 중장년, 노인 1인가구로 구분하여 사회자본의 수준을 비교한 서지원(2017)의 연구에서 중장년 1인가구는 청년 1인가구에 비해 사회자본 보유 수준이 낮았다. 전반적으로 가치나 태도에 해당하는 신뢰, 유대, 수용 등의 사회자본 수준에 비해 실천영역에 해당하는 참여 수준은 저조한 수준이었지만,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중장년 저소득 1인가구일 경우 사회자본은 가정안전의 취약성 감소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다.

3. 중년기의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생활 영역의 복잡성과 중층성을 반영하면서 총체적인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과학 분야 연구에서 복지(well-being)의 개념을 측정하는 기초지표로 널리 활용되어왔다. 주관적 생활만족도는 응답자가 느끼는 수준을 측정하여 얻은 수치를 통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개념이 응축된 하나의 지표가 된다. 이러한 생활만족도는 주로 건강, 소득,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등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인식 수준에서 측정된 다양한 생활의 측면을 하나의 지표로 사용하여 중년 무배우남성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수 선행연구(김수완, 2010; 서명희·김영희·이현옥, 2017)에서 혼인상태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배우집단이 미혼, 이혼, 사별, 별거 등을 경험한 무배우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성차를 분석한 김수완(2010)의 연구는 결혼 해체를 경

협한 남녀를 비교하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소득이 낮아졌음에도 생활만족도는 더 높았다. 특히 이혼여성의 경우 이혼남성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의 경우 이혼 후 저하된 경제적 수준을 상쇄하는 심리적 안정감과 보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남성의 이혼 후 삶에 대한 조명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서명희 외(2017)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 미혼 집단이 다른 혼인상태의 집단에 비해 여가활동만족도, 주관적 소득수준, 소득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때,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여가시간을 분석한 연구(서지원·양진운, 2017)에서 중년 1인가구 남성은 여가시간 사용량 자체는 여성보다 높았지만 여가의 질적 측면은 더 낮게 나타났다.

생애주기와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여러 연구(강유진, 2019; 강은택·강정구·마강래, 2016; 김정은·남영주, 2019; 박미현, 2016; 유현정 외, 2017)도 있다. 강유진(2019)은 소득, 거주, 가족관계, 사회관계 등 삶의 만족도를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으로 생애주기를 나누어 비교한 결과, 중년 1인가구는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등 대부분의 삶의 주관적 만족 영역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중년 1인가구는 주거환경과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에서 노인 1인가구보다도 낮았다. 다인가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는 대체로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가 다인가구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박미현, 2016; 강은택 외, 2016).

한편,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를 성별과 혼인상태별로 구분해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혼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기혼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보다 높다는 점을 밝혀낸 연구(강은택 외, 2016), 20~50세 남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 1인가구가 여성 1인가구보다 전반적 복지 수준이 높다는 점을 밝혀낸 연구(김정은·남영주, 2019), 일본의 40~64세의 중년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는 연구(平河, 2021) 등이 있다. 또한, 미래의 생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남녀 간 차이가 있음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40~60세의 미혼 중년남녀를 대상으로 한 高山(2016)의 일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현재의 생활에 크고 작은 불만을 가진 비율과 10년 후 지금보다도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생활이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1인가구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하는 가구형태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인상태 또는 배우자 유무 역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배우자가 없는, 즉 무배우 중년남성에 주목하여 혼인경험과 가구형태에 따라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수준이 어떠하며, 그에 따른 생활만족도 수준의 차이도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혼인상태에 따라 중년 무배우남성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수준은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1. 이혼 또는 사별 경험이 있는 중년 무배우남성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수준은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2. 미혼 상태의 중년 무배우남성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수준은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혼인상태에 따라 다인가구의 중년 무배우남성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수준은 가구주와 가구주 이외의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1. 이혼 또는 사별 경험이 있는 다인가구의 중년 무배우남성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수준은 가구주와 가구주 이외의 집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2. 미혼 상태의 다인가구의 중년 무배우남성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수준은 가구주와 가구주 이외의 집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혼인상태에 따라 중년 무배우남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효과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1.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이혼 또는 사별 경험이 있는 중년 무배우남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효과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2.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미혼 상태의 중년 무배우남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효과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실시한 한국복지패널조사 제13차년도 자료(2018)를 사용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조사가 시작되었고 주요 조사 항목으로는 소득, 지출, 자산 등 경제, 주거, 의료, 고용, 복지 인식 등이 있다. 최초 원표본가구는 7,072가구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제13차년도 조사의 가구 수는 총 6,474가구이다.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13차년도 자료에는 총 11,264명이 조사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연령대가 만 40~64세에 해당하는 중년기에 속하며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인 남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n=482).

3.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 평균(M)과 표준편차(SD) 등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혼인상태별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교차분석(cross tabulation)과 집단간 평균차이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할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은 다음 <표 1>과 같다.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의 Chronbach's α 는

0.782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먼저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50.6세였으며, 1인가구가 34.4%, 다인가구가 65.6%로 다인가구 비중이 높았다. 혼인상태는 미혼인 경우와 이혼·사별 집단이 각각 51.2%, 48.8%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절반 정도인 48.8%였으며, 중졸 이하가 25.9%, 대졸 이상이 25.3% 순으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임시·일용근로와 미취업이 각각 비슷한 수준인 29.7%이었으며, 상용근로는 24.3%, 자영·무급가족종사는 16.4%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가 53%,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47%이었다. 일반가구가 61.2%, 저소득가구가 38.8% 수준으로 저소득가구의 비중이 더 적었다. 주택점유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48.1%로 가장 많았고, 보증부 월세가 28.8%, 기타 13.6%, 전세 9.5%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여부를 보면, 가구주인 경우가 69.7%, 비가구주가 30.3%로 가구주인 경우가 더 많았다. 거주지역은 비수도권이 62.0%, 수도권이 38.0%로 비수도권 비율이 더 높았다.

<표 1>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변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생활만족도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 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등 7개 부문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각 부문을 5점 척도('매우 불만족=1' ~ '매우 만족=5')로 측정된 값을 모두 합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여 측정함.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
교육수준	졸업 학력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
경제활동상태	취업 유형을 '상용근로', '임시·일용직 근로', '자영업/무급 가족종사자', '미취업'으로 구분
만성질환	만성질환 있음=1, 만성질환 없음=0
인터넷 사용	인터넷 사용=1, 인터넷 미사용=0
신뢰	"일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 믿을 만하다'고 응답한 경우를 신뢰가 높은 것으로 정의하고, '매우 조심해야 한다'로 응답한 경우를 신뢰가 낮은 것으로 구분함. (높은 신뢰=1, 낮은 신뢰=0)
유대	"귀하는 만약 지역사회 내에서 누군가가 위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꺼이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유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자원봉사 참여	자원봉사 참여=1, 자원봉사 비참여=0
연령대	만 나이를 '40대', '50대', '60대'로 구분
저소득가구	중위 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저소득가구로 정의 (저소득가구=1, 일반 가구=0)
주택점유형태	주택점유형태를 '자가', '전세', '보증부 전세', '기타'로 구분
가구주	가구주=1, 비가구주=0
거주지역	수도권=1, 비수도권=0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 / M(SD)
연령		50.6(6.8)
가구형태	1인가구	166(34.4)
	다인가구	316(65.6)
혼인상태	이혼·사별	247(51.2)
	미혼	235(48.8)
교육수준	중졸 이하	125(25.9)
	고졸	235(48.8)
	대졸 이상	122(25.3)
	상용근로	117(24.3)
경제활동상태	임시·일용 근로	143(29.7)
	자영·무급 가족종사	79(16.4)
	미취업	143(29.7)
만성질환	있음	227(47.0)
	없음	255(53.0)
저소득가구	저소득가구	187(38.8)
	일반가구	295(61.2)
	자가	232(48.1)
주택점유형태	전세	46(9.5)
	보증부 월세	139(28.8)
	기타	65(13.6)
	가구주	335(69.7)
거주지역	수도권	183(38.0)
	비수도권	299(62.0)
n		482(100.0)

2. 중년 무배우남성의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별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비교

이혼·사별 경험이 있는 중년 무배우남성 집단과 미혼인 중년 무배우남성 집단을 대상으로 1인가구와 다인가구로 구분하여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1) 이혼·사별 경험이 있는 중년 무배우남성의 가구형태에 따른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차이

먼저 현재는 무배우 상태이지만 과거 이혼·사별한 경험이 있는 중년남성집단을 대상으로 인적자본의 수준을 1인가구와 다인가구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인터넷 사용 유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중졸 이하는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고졸 비율은 1인가구보다 다인가구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1인가구는 미취업 비중이 가장 높았고, 임시·일용 근로, 상용근로, 자영무급가족종사 순이었다. 한편, 다인가구는 1인가구에 비해 미취업 비중이 낮고 임시·일용근로, 상용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인터넷 사용을 보면,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다인가구가 1인가구보다 인터넷사용 비율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표 3〉 혼인상태에 따른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간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차이

		이혼·사별		t / χ^2	미혼		t / χ^2	
		1인가구	다인가구		1인가구	다인가구		
		빈도(%) / M(SD)	빈도(%) / M(SD)		빈도(%) / M(SD)	빈도(%) / M(SD)		
인적 자본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3(40.7)	45(27.1)	5.5 [†]	24(28.2)	23(15.3)	5.9 [†]
		고졸	34(42.0)	94(56.6)		33(38.8)	74(49.3)	
		대졸 이상	14(17.3)	27(16.3)		28(32.9)	53(35.3)	
	만성 질환	없음	32(39.5)	42(49.4)	2.1	47(55.3)	90(60.0)	0.5
		있음	49(60.5)	84(50.6)		38(44.7)	60(40.0)	
	경제 활동 상태	상용근로	16(19.8)	46(27.7)	11.9 ^{**}	21(24.7)	24(22.7)	11.9 ^{**}
		임시·일용 근로	24(29.6)	55(33.1)		26(30.6)	38(25.3)	
자영·무급가족종사		13(16.1)	39(23.5)	6(7.1)		21(14.0)		
인터넷사용	미취업	28(34.6)	26(15.7)	4.9 [*]	32(37.7)	57(38.0)	2.9 [†]	
	사용	50(61.7)	125(75.3)		57(67.1)	116(77.3)		
사회 자본	신뢰	미사용	31(38.3)	41(24.7)	2.7	28(32.9)	34(22.7)	0.1
		높은 신뢰	34(42.0)	88(53.0)		42(49.4)	77(51.3)	
	자원 봉사	낮은 신뢰	47(58.0)	78(47.0)	0.2	43(50.6)	73(48.7)	0.4
		유대	3.5(0.9)	3.6(0.7)		3.7(0.9)	3.7(0.7)	
	참여	12(14.8)	15(9.0)	1.9	15(17.7)	9(6.0)	8.0 [*]	
	비참여	69(85.2)	151(91.0)		70(82.4)	141(94.0)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사회자본 변수의 경우 신뢰와 유대의 경우 다인가구가 약간 높고, 자원봉사 참여의 경우 1인가구가 약간 높았지만, 세 사회자본변수 모두 다인가구와 1인가구의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2) 미혼인 중년 무배우남성 가구형태에 따른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차이

미혼인 중년 무배우남성을 대상으로 1인가구와 다인가구로 구분하여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적자본에서 교육수준의 차이를 보면, 중졸 이하 비율은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높고, 다인가구의 절반이 고졸 수준이었다. 대졸 이상인 비율은 1인가구, 다인가구 모두 3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두 집단 간의 교육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터넷사용의 차이를 보면, 미혼 중년 무배우남성 집단의 경우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1인가구에 비해 다인가구 남성의 인터넷 사용 비율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사회자본변수 중 자원봉사 참여 경험은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비율이 훨씬 높은 가운데, 자원봉사 참여는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 다인가구 중년 무배우남성의 가구주 여부에 따른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차이

다인가구를 이루는 중년 무배우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혼인상태와 가구주 여부에 따라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이혼·사별 경험에 있는 중년 무배우남성 집단에서 비가구주와 가구주 집단 간 차이를 보면, 교육수준과 자원봉사 참여 비율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수준을 보면 비가구주 집단이 가구주 집단에 비해 중졸 이하 비율이 낮고 고졸 비율이 높았다.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비가구주보다 가구주의 경우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미혼이면서 다인가구인 중년 무배우남성 집단에서 가구주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경제활동상태 변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비가구주인 미혼 다인가구 중년 무배우남성의 경제활동상태는 같은 조건의 가구주인 집단에 비해 미취업 비율이 높았고, 상용직 근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4> 다인가구에 있어서 혼인상태 및 가구주 여부에 따른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차이

		이혼·사별		t/ x ²	미혼		t/ x ²
		비가구주	가구주		비가구주	가구주	
		빈도(%) / M(SD)	빈도(%) / M(SD)		빈도(%) / M(SD)	빈도(%) / M(SD)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14.3)	38(32.5)	6.2 [*]	14(14.4)	9(17.0)	2.9
	고졸	34(69.4)	60(51.3)		44(45.4)	30(56.6)	
	대졸 이상	8(16.3)	19(16.2)		39(40.2)	14(26.4)	
인적 자본	만성 질환	없음	28(57.1)	1.7	59(60.8)	31(58.5)	0.8
	있음	21(41.9)	63(53.8)		38(39.2)	22(41.7)	
	경제활동 상태	상용근로	9(18.4)		3.5	19(19.6)	
임시·일용 근로	18(36.7)	37(31.6)	24(24.7)	14(26.4)			
자영·무급가족종사	13(24.5)	27(23.1)	9(9.3)	12(22.6)			
인적 자본	인터넷사용	미취업	10(20.4)	0.6	45(46.4)	12(22.6)	0.0
	사용	35(71.4)	90(76.9)		75(77.3)	41(77.4)	
	미사용	14(28.6)	27(23.1)		22(22.7)	12(22.6)	
사회 자본	신뢰	높은 신뢰	24(49.0)	0.5	48(49.5)	29(54.7)	0.5
	낮은 신뢰	25(51.0)	53(45.3)		49(50.5)	24(45.3)	
	유대	3.6(3.7)	0.8(0.7)		-0.9	3.6(0.7)	
사회 자본	자원 봉사	참여	1(2.0)	4.1 [*]	4(4.1)	5(9.4)	1.7
	비참여	48(98.0)	103(88.0)		93(95.9)	48(90.6)	

[†]p<.10, *p<.05, **p<.01, ***p<.001

4.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에 따른 중년 무배우남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효과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혼인상태별로 중년 무배우남성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1) 이혼·사별 중년 무배우남성의 가구형태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먼저 이혼·사별 경험이 있는 중년 무배우남성 집단을 보면, 인적자본 중 경제활동상태의 효과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공통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경우, 상용근로에 비해 임시·일용근로 집단과 미취업집단일 경우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한편, 다인가구에서는 상용근로와 비교하여 다른 모든 유형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임시·일용직 근로, 자영업, 미취업일 경우 상용근로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인적자본 중 교육수준의 효과는 1인가구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때 대졸 이상에 비해 고졸인 경우의 생활만

족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 사회자본 변수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1인가구와 다인가구에서 변수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1인가구는 자원봉사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자원봉사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다인가구는 신뢰 수준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높은 신뢰 수준을 가진 집단이 낮은 신뢰 수준의 집단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통제 변수의 효과를 보면, 다인가구에서만 생활만족도에 대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난 변수는 저소득 유무로 나타났으며, 저소득 가구인 경우 일반 가구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다인가구에서 거주지역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비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1인가구집단에서는 통제 변수 중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중년 무배우남성의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혼·사별				미혼				
	1인가구		다인가구		1인가구		다인가구		
	B	SE	B	SE	B	SE	B	SE	
인적 자본	교육수준(기준: 대졸 이상)								
	중졸 이하	-.255	.193	-.008	.123	-.079	.250	-.034	.139
	고졸	-.290	.166 [†]	.015	.105	-.190	.176	-.162	.089 [†]
	만성질환 있음	-.259	.131 [†]	.002	.080	-.245	.140 [†]	-.054	.087
	경제활동상태(기준: 상용근로)								
임시·일용 근로	-.412	.170 [*]	-.290	.097 ^{**}	-.204	.212	.075	.119	
자영·무급가족종사	-.280	.191	-.259	.103 [*]	.149	.324	.177	.139	
미취업	-.503	.219 [*]	-.490	.138 ^{**}	-.681	.284 [*]	-.110	.133	
인터넷 사용	-.062	.140	-.045	.096	.168	.225	.129	.111	
사회 자본	높은 신뢰	.004	.124	.178	.074 [*]	.172	.140	.197	.084 [†]
	유대	-.028	.070	-.022	.052	.247	.078 ^{**}	.124	.061 [†]
	자원봉사 참여	.462	.184 [†]	.097	.131	-.078	.180	.016	.171
통제 변수	연령								
	저소득가구	-.166	.147	-.169	.090 [†]	.110	.246	-.224	.099 [*]
	수도권	-.042	.123	-.181	.082 [*]	-.062	.141	-.154	.081
	주택점유형태(기준: 자가)								
	전세	.064	.332	-.009	.120	-.262	.236	.261	.137 [†]
보증부 전세	-.119	.156	.083	.096	-.092	.178	.007	.119	
기타	-.002	.177	-.047	.127	-.055	.203	-.031	.158	
가구주									
상수	3.952	.629 ^{***}	3.479	.464 ^{***}	2.721	.691 ^{***}	2.667	.485 ^{***}	
Adj. R ²	0.2947		0.1773		0.2823		0.3242		
F값	3.09 ^{***}		3.09 ^{***}		3.07 ^{***}		3.72 ^{***}		
n	81		166		85		150		

[†]p<.10, *p<.05, **p<.01, ***p<.001

2) 미혼 중년 무배우남성의 가구형태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 미혼 중년 무배우남성을 대상으로 1인가구와 다인가구로 나누어 생활만족도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적자본의 효과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 집단 간에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1인가구의 경우, 경제활동상태와 만성질환 여부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집단이 상용근로 집단에 비해,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만성질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한편, 다인가구의 경우, 교육수준만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졸 이상에 비해 고졸일 경우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미혼의 중년 무배우남성 1인가구의 경우, 사회자본 중 유대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때 유대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다인가구의 경우 신뢰와 유대, 두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높은 신뢰 수준을 가진 집단은 낮은 신뢰 수준의 집단에 비해, 유대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통제변수의 효과를 정리하면, 다인가구 집단에서 저소득, 주택점유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즉, 저소득인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생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자가에 비해 전세일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1인가구 집단에서는 통제변수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 무배우남성을 대상으로 1인가구와 다인가구를 형성하는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과거의 혼인 경험과는 관계없이 현재 무배우 상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혼인상태와 1인가구 여부에 따른 가구형태에서 차이점이 있는 집단이다. 지금까지 많은 선행 연구(강유진, 2019; 강은택 외, 2016; 김정은·남영주, 2019; 박미현, 2016; 유현정 외, 2017)는 배우자 유무나 과거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특정 생애주기에 속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현재 생활상의 문제에 주목함으로써 1인가구 정책의 필요성과 프로그램 개입 수준을 제시하는 등 1인가구 문제에 대한 이론과 실천 영역의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중년기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원과 함께 살아가는 다인가구 중년 무배우남성 집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무배우이면서 현재는 1인가구가 아닌 중년남성의 경우에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가까운 미래에 1인가구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특히 생애주기 중 노년기에 홀로 되어 1인가구로 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구모형의 설정을 위해 중년 무배우남성 중에 1인가구와 다인가구를 구분하여 이들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특성이 어떠한지,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에서 중년 무배우남성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와 더불어, 이들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과거 혼인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가구형태인 1인가구 여부에만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배우자 유무를 고려하고 1인가구와 다인가구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즉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이혼·사별의 경험이 있는 경우와 미혼인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1인가구 중에서도 이혼·사별 경험이 있는 집단은 미혼 집단에 비해 상용근로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안정성이 높은 종사상의 지위를 갖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는 중년남성 집단에서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임금근로 비율이 높다는 결과(이현정, 2017)가 있는가 하면 이와 상반되게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비경제 활동 비율이 높다는 결과(강은나·이민홍, 2016; 이호정·김재태, 2017)가 혼재되어 있어 논의를 단순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1인가구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중년 1인가구의 경우 중년기에 이르기까지의 삶의 경험이 누적되어 다양성이 강하게 존재함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1인가구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혼인상태의 차이는 경제활동상태와 연관성이 있는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중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는 개인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년 1인가구 취업 알선 프로그램 등을 기획함에 있어서는 청년기에 비해 개별적 경험을 반영한 세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1인가구 여부를 떠나 중년남성의 경우 혼인상태를 고려하여 무배우 상태에 있는 집단의 특성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년층 및 고령층 남성은 혼인상태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며(김혜연, 2020), 이혼·별거 등의 결혼 해체의 경험이 있을 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우울도가 높았다. 배우자의 존재를 상실하는 것은 남녀 모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남성에게 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아, 2010). 또한, 현재 혼인상태에 있지 않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이 정서적 고립에 빠질 위험은 다른 집단보다 더 크다(박찬웅 외, 2020)는 연구도 있다. 혼인경험 또는 혼인상태가 정서적 고립, 우울 및 생활만족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을 가진다.

둘째, 중년 무배우남성 집단 내에서 혼인상태와 가구형태를

고려하여 집단 간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미혼인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간에 사회자본 변수인 자원봉사 참여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때 미혼 다인가구의 자원봉사 참여 비율이 낮았다. 또한, 다인가구를 형성하는 중년 무배우남성 가운데 이혼·사별을 경험한 집단에서는 가구주 여부에 따라 비교하면 가구주가 아닌 경우 자원봉사 참여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다른 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이혼·사별을 경험한 1인가구 집단에서 자원봉사 참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자원봉사 참여, 사회 관계망 및 사회적 인정과 같은 요인이 중고령자의 행복감, 주관적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현성의, 2019; 박창제, 2019; 윤남교·조성제, 2020)와 유사한 맥락을 지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하나로 자원봉사 참여 여부에 주목하였는데, 향후 중년의 1인가구뿐 아니라 무배우남성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참여를 비롯한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높이는 정책은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중년 무배우남성의 다인가구 중 가구주 여부에 주목하면, 미혼이면서 비가구주일 경우에는 취업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동거하는 중년층이 늘어나는 현상에 주목한 일본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40~50대 무배우 중년 집단을 분석한 藤森(2021)의 연구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40세 이상의 미혼 집단은 1인가구의 40세 이상의 미혼 집단에 비해 미취업률이 더 높다는 결과와 35~44세 미혼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실업률이 높음을 보고한 연구(西, 2015)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다인가구 구성원으로 살면서 가구주가 아닌 경우에 가구주와의 관계를 보면 대부분(91.8%)이 가구주의 자녀인 경우였는데, 이는 중년에 이른 성인자녀가 노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형태로 유추된다. 따라서 중년 무배우남성의 경우 1인가구가 아니라 다인가구에 속해 있다 해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역시 중년 무배우 남성 다인가구에 대해 1인가구와 더불어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들 중년 무배우남성 집단은 현재 다인가구를 형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혼자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생활만족도 수준이 같은 조건의 1인가구에 비해 낮지 않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자본은 사람들 간의 연결망에서 비롯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중년 무배우남성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 무배우 집단 내에서의 다양한 특성별 비교를 통해 사회자본 수준이 더욱 낮은 집단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최근 가구형태에서 1인가구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1인가구를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가구형태보다는 오히려 중년기라는 생애주기의 요구에 근거를 둔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함으로써 비슷한 욕구를 가진 다인가구 중년 무배우남성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자본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중년 무배우남성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포괄적인 대상 설정은 소외와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중년무배우 남성이 일단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중년 무배우남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이들이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노년기에 사회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거나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느껴 정신건강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년 무배우남성 집단을 대상으로 단지 1인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혼인 경험과 가구형태를 아울러 상대적으로 복지적 관심 대상과 거리가 먼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들의 자원과 삶의 질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발달적 관점에서 보면, 중년기의 무배우 상태는 1차적인 강한 지지망이 되는 부부 관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지지망이 부재하는 상태로 보기도 하는데, 최근 변화하는 결혼관과 자녀관을 반영하더라도 결혼과 자녀 출산에 관련된 사회적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우려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경험과 조건하에서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미래지향적 가족정책 과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중년의 무배우 다인가구 중에서도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인가구의 가구형태와 구조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들이 경험하게 될 위기를 경감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복지패널이 지닌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다인가구의 경우 가구주 여부에 대한 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으므로 함께 사는 가구원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가족 형태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만약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중년 무배우남성의 경우라면 노부모의 부양을 받는 상태인지, 혹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상태인지 등에 따른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년남성만을 연구대상으로 다루었는데, 이 역시 중년 무배우여성이 중년 무배우남성에 비해서 그 숫자가 현저히 적다는 자료상의 한계에 기인한다. 향후 중년 무배우 상태인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차이를 규명하고 성차를 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강유진(2019). 1인가구 우울과 관련요인: 연령집단 별 비교를 중심으로. 생애학회지, 9(1), 1-19.
- 2) 강은나 · 이민홍(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34, 47-56.
- 3) 강은택 · 강정구 · 마강래(2016). 1인가구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3-23.
- 4) 김수완(2010). 결혼해체 이후 삶의 변화: 경제적 상태와 생활만족도 변화에 관한 종단 연구. 한국여성학, 26(1), 35-67.
- 5) 김정은 · 남영주(2019). 남녀 1인가구의 주관적 웰빙과 스트레스의 관계 분석. 가족과가족치료, 27(3), 397-428.
- 6) 김현성 · 이기영 · 김강민 · 이교창 · 안준형 · 황재건(2019). 중장년층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및 여가생활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여가학연구, 17(1), 73-94.
- 7) 김혜연(2020). 성별 및 연령 집단별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의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4(2), 47-72.
- 8) 김혜영(2008). 신자유주의와 다양한 가족. 한국사회, 9(20), 55-94.
- 9) 박미현(2016). 장년층 1인가구의 특성 분석: 다인가구와의 비교.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17, 115-129.
- 10) 박성신 · 이민아 · 신영화 · 박영례(2017). 남자노인 1인가구의 거주지 주변 활동공간 이용실태 및 요구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55, 265-297.
- 11) 박찬웅 · 김노을 · 유부원 · 윤민지(2020). 한국사회의 사회적 고립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한국사회, 21(2), 41-73.
- 12) 박창제(2019). 중고령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12(2), 23-48.
- 13) 서명희 · 김영희 · 이현옥(2018). 1인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연구: 미혼과 기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컨텐츠학회논문지, 17(1), 718-727.
- 14) 서지원(2017). 가정안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분석: 1인가구와 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2), 25-50. DOI : 10.22626/jkfrma.2017.21.2.002.
- 15) 서지원 · 양진운(2017). 중년 1인가구의 혼인상태별 여가시간사용 결정요인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3), 77-95. DOI : 10.22626/jkfrma.2017.21.3.005.
- 16) 유현정 · 이아름 · 송유진 · 안혜리(2017).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활용한 1인가구의 소비생활 특성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48(2), 277-301.
- 17) 윤남교 · 조성제(2020).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지속성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서울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대상자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6(7), 105-114.
- 18) 이민아(2010). 결혼상태에 따른 노인의 우울도와 성차. 한국사회학, 44(4), 32-62.
- 19) 이현정(2017). 비노년층 및 노년층 비혼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자산포트폴리오 특성 및 주택자산효과 비교. 도시행정학보, 30(2), 1-24.
- 20) 이호정 · 김재태(2017). 50대 이상 중고령자 가구의 부동산 자산 보유 영향요인 연구-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한 1인가구와 다인가구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지, 15(3), 61-77.
- 21) 이희연 · 노승철 · 최은영(2011). 1인가구의 인구 · 경제 ·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과 공간분포. 대한지리학회지, 46(4), 480-500.
- 22) 차경욱(2006). 남성 일인가구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253-269.
- 23) 통계청(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
- 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5) 한경혜 · 김주현 · 김경민(2003). 중년기 남녀의 사회적 관계망과 정신건강. 한국노년학, 23(2), 155-170.
- 26) 白波瀬佐和子(2005). 少子高齢化時代のみえない格差, 東京大学出版会.
- 27) 白波瀬佐和子(2009). 日本の不平等を考える-少子高齢社会の国際比較, 東京大学出版会.
- 28) 千保喜久夫(2011). 独身女性の労働生活に対する意識について. 財団法人年金シニアプラン 総合研究機構編. 第3回独身女性(40-50代)を中心とした女性の労働設計ニーズに関する調査, 83-93.
- 29) 高山憲之(2016). 「くらしと仕事に関するインターネット調査」からみた中年未婚男性の生活実態と意識: 調査結果の概要. 年金研究, 3, 210-262.
- 30) 宮本みち子(2019). 団塊親子が直面する危機: 家族と就労の観点から. 生活経済政策, 271, 11-16.
- 31) 西文彦(2015). 親と同居する壮年未婚者 2014年. 財団法人年金シニアプラン総合研究機構編. 第4回 独身者(40~50代)の老後生活設計ニーズに関する調査, 1-12.
- 32) 平河茉璃絵(2021). 第5回独身者(40代-60代前半)の老後生活設計ニーズに関する調査: 調査結果の概要(全体および男女別等). 年金研究, 15, 119-165.
- 33) 藤森克彦(2016). 中年未婚者の生活実態と老後リスクについて: 「親などと同居する2人以上世帯」と「単身世帯」からの分析. 年金研究, 3, 78-111.
- 34) 藤森克彦(2019). 中年層の単身世帯が抱える生活上のリスクと求められる対策' 家族社会学研究, 31(2), 172-189.
- 35) 藤森克彦(2021). 中年未婚者の生活実態と老後への備えに関する分析- 「単身世帯」と 「親と同居する世帯」の比較-. 年金研究, 15, 52-76.

- 36) 山田昌弘(2019). 単身で暮らすということ—中年単身層の現在：独身者の生活実態. 日本 家族社会学研究, 第31巻 第2号, 150-159.
- 37) 山田昌弘・苫米地伸・金原あかね(2011). 家族形態の変化と経済状況の変動との関連についての研究—イレギュラーな世帯とその経済状況の変化. 総務省統計研究所 リサーチペーパー27号.
- 38) Becker, G. (1964). Human capit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39) Bryant, K. (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40)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41) Field, J. (2004). Social capital: London & New York: Routledge.
- 42)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43) Putnam, R.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s, 4(13), 35-42.
- 44)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NY: Simon and Schuster.

- 투 고 일 : 2021년 06월 15일
- 심 사 일 : 2021년 10월 12일
- 계 재 확정 일 : 2021년 11월 22일